

나이지리아 주간 경제 및 에너지 동향 (6월 4주~7월 1주)

-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-

《 에너지 및 인프라 》

1. AfDB, 4억3천만 달러규모의 Enugu-Bamenda 고속도로 준비

- 아프리카 개발은행(AfDB)는 나이지리아 남동부 지역 Enugu와 카메룬 Bamenda를 연결하는 4억 3천만 달러 고속도로를 추진한다고 발표
- 아테시나 AfDB 행장은 가나에서 열린 ECOWAS 정기회의에서 해당 인프라 사업을 24개월안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

【출처 : Nairametrics (6.23)】

2. NCDMB, 석유업계를 위한 3천만달러 규모 펀드 설립

-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및 모니터링 위원회(NCDMB)는 Covid 19 및 저유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석유 회사들을 지원하기위한 펀드를 설립
- 와보테 NCDMB 의장은 석유업계 지원 펀드의 규모는 3천만 달러이며 출시일은 21년 7월 1일이라고 발표

【출처 : Vanguard News (6.23)】

3. 나이지리아 휘발유 밀매 4천 2백만 리터/일에 달해

- 나이지리아 국립석유공사(NNPC)는 하루 4천 2백만 리터에 달하는 휘발유가 국경을 통해 밀매된다고 발표
- 이에 따라, NNPC는 휘발유 시장가격을 162나이라/리터로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보조금이 1,500억 나이라에 이른다고 언급

【출처 : Thisday News (6.24)】

4. 연방정부, 라고스-이바단 철도 노선을 통해 연간 11억나이라 수익 창출

- 나이지리아 철도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신규 건설한 라고스-이바단 철도 노선운영으로 연간 약 11억 나이라의 수익을 발생
- 현재 2대의 열차로 일일 4회 주행 중이며, 1등석은 좌석당 6천나이라, 일반석은 3천5백 나이라 수준의 운임으로 운영

【출처 : The Punch News (6.23)】

5. 나이지리아 상원 '석유산업법' 제정안 통과

- 나이지리아 상원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7월 1일(목) '석유산업법' 제정안을 통과시킴
- 이에 따라 석유회사들은 벌어들인 이익의 3퍼센트를 지역사회에 분배해야하며, 이 비율을 3% 또는 5% 중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 통과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

【출처 : The Punch 외 다수 (7.22)】

6. NNPC, 단고테 정유소 지분 인수를 위해 38억 달러 차입 예정

- 나이지리아 석유공사(NNPC)는 단고테 정유소 지분 20%를 인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로 부터 인수 자금 차입을 추진
- Kyari 석유공사 사장은 190억 달러 규모의 라고스 정유공장은 22년 가동될 예정이며, 연방정부가 지분 인수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

【출처 : Thisday News (6.30)】

《 경제일반 》

7. 나이지리아 외환보유고 1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

- 나이지리아 외환보유고가 지난 목요일 337억 9천만 달러로 감소하여 13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
- 이는 Covid 19 재유행으로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한 원유 판매 감소에 크게 기인

【출처 : Guardian (6.22)】

8. 2021년 나이지리아 1분기 주요 수입 국가 분석 발표

- '21년 1분기 중국이 2조100억 나이라로 나이지리아 주요 수입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전체 수입액의 29.3%를 차지
- 그 외 주요 수입국으로 네덜란드(7,261억 나이라), 미국(6,081억 나이라)가 있으며 한국은 10위(1,296억 나이라)를 차지

9. 연방정부, 나이지리아 국내총생산(GDP) 22년 4.2% 상승 예상

- 아흐메드 재무부 장관은 17일 재정전략 보고서 초안 발표회에서 21년 GDP는 2.5%, 22년에는 4.2%로 예상된다고 발표
- 아울러, 22년 명목 국내총생산(GDP)은 168조6천 나이라, 23년은 201조 나이라로 예상되며, 21년 15%였던 물가상승율은 22년 13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

【출처 : Premium times (6.30)】